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태 현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가 지각한
부모효능감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 준 희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가 지각한
부모효능감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김태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 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 준 희

인 준 서

박준희의 박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을 선정하였고, 종합적으로 관련 변인들이 부모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성격특성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자녀유능감 척도, 가족관계의 질 척도, 부모효능감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신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였으며, 총 420명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집된 자료에 대해서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검증, 일원변량분석, 적률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배경변인,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인 부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평균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성격특성은 타인과의 관계와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관계지향성과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와 규칙에 민감한 자율지향성으로 분류했다. 5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관계지향성이 자율지향성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부모의 긍정적 감정인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가족관계의 질,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부모효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각 변수의 특징을 살펴 본 결과 부모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부모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전업주부일 경우 부모의 성격 특성인 자율지향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보다 어머니 집단이 사회적 지지를 다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유능감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유능감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유능감의 하위영역인 운동능력 영역과 인지능력 영역은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고 고소득 일수록, 자녀가 다니는 학원수가 4곳 이상일 경우 각 영역에 긍정적이었고, 사회능력 영역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이고 자녀가 다니는 학원 수가 많을수록 부모는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에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가족관계의 질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자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효능감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다소 높게 지각 했으며, 부모의 결혼기간이 짧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녀가 첫째 일 경우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 행동, 표현의 자유, 부모 자신이 설정한 목표의 성취를 중시하는 자율지향성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부모 효능감 수준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격 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부모효능감이 부모의 성격 특성, 가족관계의 질, 그리고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결과로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의 의의	6
3. 연구의 목적	8
II. 이론적 배경	9
1. 부모효능감의 개념 및 특성	9
1) 부모효능감의 개념 및 정의	9
2) 부모효능감의 특성	12
2. 부모효능감과 관련변인	17
1) 성격특성	17
2) 사회적 지지	22
3) 자녀유능감	28
4) 가족관계의 질	35
III.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42
1. 연구문제	42
2. 연구모형	43
3. 용어의 정의	44

IV. 연구방법	46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46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50
3. 자료의 분석방법	55
V. 연구결과	56
1.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일반적 경향	56
2.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차이	57
3. 배경변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71
VI. 논의 및 결론	74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변인별 신뢰도계수 및 평균값	50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4
<표 3>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전반적인 수준	57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59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60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자녀유능감의 차이	65
<표 7>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관계의 질 차이	68
<표 8>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	70
<표 9> 부모효능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73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43
-------------------	----

I. 서 론

1. 문제 제기

현대가족은 가족의 구조, 사회적 기능, 정서적 관계, 가치관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형태와 기능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사회의 핵심적인 기초 단위로서 사회 체계의 중요한 하위체계로서 존속한다. 특히 가족생활에서 보호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는 가족 안에서 주로 수행되어온 보호와 돌봄의 역할들에 대한 더욱 효율적 수행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모의 역할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또는 그 대리인으로 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즉 안정된 의식주의 공급 및 정서적 애착의 대상을 추구하는 본능적 성향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의 보호 욕구를 최초로 만족시켜 주는 환경이 가족이며, 부모는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차적 대리인이다.

부모는 가족 내에서 자녀와 최초로 밀접한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 존재로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들로 하여금 가족 내에서 가족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존재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책임감을 갖는 어려운 과정이다.

가족발달학적 관점에서 특히 자녀의 학동기 진입의 단계는 가족 모두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로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정서적 · 인지적 · 사회적 발달이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Berk(2002)는 자녀의 학령시기를 설명하면서 부모는 이 시기에 자녀의 발

달을 돕기 위하여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기본적 신뢰형성자로서의 역할, 사회적 발달촉진자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Erikson(1963)은 발달과업적 측면에서 학령기 시기의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령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서 아동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이며, 학교생활을 통해 많은 지적 능력을 개발 할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의 가치관이나 규범을 획득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설명하였다.

아동들이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 근면성이 개발되는데 이때 부모와 주변 성인의 적당한 인정과 격려가 있다면 아동은 성취 과업에 대한 건전한 근면성이 길러지나 그렇지 못하면 아동은 심한 좌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조복희, 2000. 재인용). Erikson은 이 시기에 아동의 잠재적 능력이 개발되어 키워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잠재해 버릴 수도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처음 초등학교에 보내고 난 후 많은 기대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적절한 부모의 기대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오영미, 1997; Maccoby, 1980), 부모의 부적절한 과잉기대는 오히려 아동에게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김종범, 1995; 장은경, 1996).

지금까지 부모의 수행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것이었으나 최근에 와서 부모의 양육 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부모효능감과 같은 부모의 인지적 특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Melson et al., 1993; Miller, 1988). 부모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인 부모효능감은 부모 스스로가 인지하는 부모의 인지적 특성으로,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이며, 이러한 부모효능감은 자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지고 있다

(안지영, 2001; 최형성, 2005; 김진희, 2005; 이슬기 · 전귀연 · 김수경, 2007).

특히 최형성(2005)은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양육행동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효능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의 심리적 · 정서적 발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서 궁극적으로 아동기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 ·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수, 성별, 부모의 연령과 학력, 직업 등의 인구학적 변인이나 남편의 육아협조(안지영, 2001; 문혁준, 199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송미애 · 송연숙 · 김영주, 2007; 김현미 · 도현심, 2004; 문태형, 2002; 신숙재, 1997)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함께 자녀양육이 부모 공동의 관심사이자 공동의 책임으로 부과됨에 따라 최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이슬기 · 전귀연 · 김수경, 2007), 부모효능감은 부모 양쪽이 갖는 개인적 특성의 내적 · 외적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모의 성격을 강조한다. 부모의 성격은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의 행동과 대처방식에 밀접하게 관계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김연옥 · 김영희, 2002).

부모의 성격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의 성격이 자녀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윤은수, 1982; 윤진란, 1994; 한종혜, 1980).

본 연구에서 부모의 성격특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관계지향성과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와 규칙에 민감한 자율지향성으로 분류했다.

부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관계들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 도움으로서 부모의 긍정적인 자원이자 잠재적인 자원이 된다(김영화, 2006). 그동안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대상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부모 자신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부모와 사회적 지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부모가 사회적 관계들을 통해 대처자원, 양육행동, 부모 역할 인식, 훈육 방법 등에 관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으며,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재적 기능을 강조하였다(황은, 2005; 고선주, 2004).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부모와 자녀사이를 연결하는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가족 또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방 체계인 것을 가정할 때 가족 성원 모두가 여러 수준에서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어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된 부모의 정서적인 사회적 지지가 완전한 부모의 자원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가정할 때,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의해 가족 관계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사회적 지지라는 대처자원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은 가족관계를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가족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자신감인 부모효능감 역시 높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을 통해 지각되는 가족관계의 질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원이 사회적 지원과 가족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한다면 가족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유능감은 자녀의 성별, 연령, 개인적 변인 뿐 아니라 부모 및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등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한다고 보고된다(서미정, 1999). 유능감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비교를 통해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아동이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는 부모는 자녀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자녀의 발달을 통한 부모의 지각과 성취감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요인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오늘날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은 아동의 발달을 돕고, 아동을 그들의 미래에 맞게 사회화 시키며, 모든 가족이 표현적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즉 바람직한 부모란 양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자녀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고도의 부모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며, 부모들은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기 쉬운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특히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적 영역의 지원이 아직 부족한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로서의 부담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많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행동의 동기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등의 요소들이 부모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바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효능감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2. 연구의 의의

오늘날 부모효능감은 자녀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변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맞벌이가 증가하는 현대사회는 부모에게 양성(androgynous)평등적인 부모역할을 요구한다. 이는 부모의 역할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전통적 성역할 분리로 구분되던 역할들을 공유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함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이유는 약 8세 이후의 아동은 능력의 각 부문 간의 변별을(Harter, 1982)할 수 있지만 학교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새로운 상황이나 어려움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가정에서의 주된 상호작용 역시 부모라는 점이다. 부모로서 가지게 되는 부모효능감은 아동의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아동과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지속적인 발달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초등학교 입학울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초기특성과 부모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셋째, 부모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유

아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부모효능감과 관련하여 부모의 성격특성이나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과 같은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제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과 같은 구체적인 변인들을 설정하여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그 경로를 살펴보려 한다. 이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기초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부모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등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부모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부모효능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셋째,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효능감의 개념 및 특성

1) 부모효능감의 개념 및 정의

부모효능감이란 개념은 최근에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모효능감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많은 부모들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심과 열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부모역할 수행에 직면하게 되어 자녀의 성장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효능감이란 용어는 Bandura(1977)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효능감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행동적인 기술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배합해야하는 생성적 능력임을 강조했다. 즉 효능감은 개인 행동의 주된 근원이 되며, 다양한 행동영역에서 측정 될 수 있는 자기 판단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 변화가 환경적 요인 같은 외적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과정을 매개로 하며,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문제 상황이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양과 지속성은 증가되는 반면, 반대로 자신의 능력에 회의감을 갖는 개인은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즉 인지된 자기효능감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효능감은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제 능력에 차이가 없더라도 효능감이 낮은 사람 보다 더 의미 있게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부모효능감이란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주관적인 평가가 강조 될 수 있으나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이라 할 수 있다.

부모효능감을 측정하는 초기의 척도는 Giband Wallston과 Wandersman(1978)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 되어있다.

인지적 차원의 내용으로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각하는 경우와 좋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지각해야 하는 경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서적 차원의 내용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 걱정인 경우와 부모로서 긴장과 불안한 상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능력에 결정적인 요소(Dorsey, Klein & Forehand, 1999)로 작용한다.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 역할에 적응을 돕고 자녀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는 중요한 인지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이 정의한 부모효능감을 살펴보면, Johnston과 Mash(1989)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이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부모 자신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적절한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강조했다. 김선애와 한유진(2009)은 부모효능감이란 주어진 부모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부모 자신의 능력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Luster와 Kain(1987)은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부모효능감을 설명했다. 이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 할수록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

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을 의미한다. Mondell 과 Tyler(1981)는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는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 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했다.

부모효능감에 대한 학자들에 따른 정의에는 이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부모효능감을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자신의 믿음이라고 정의한다(Dorsey, Klie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이와 같이 부모효능감이란 부모역할 수행의 차원에서 볼 때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여,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 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말하는 것이며,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자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효능감을 사회적 지원의 차원에서 볼 때 부모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부모효능감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자녀 양육 태도의 잠재적 요인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과거의 부모의 모습에서 민주적이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현대의 부모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앞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을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과 지각이라고 정의한다.

2) 부모효능감의 특성

인간의 발달은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 이웃,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은 아동들에게 문화 속에서 기대되는 것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교육시키고자 하며, 아동에게 기대되는 행동이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부모는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기본 신뢰 형성의 대상자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자녀에게 다양한 자극 요인들을 제공하게 되며,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발달 촉진자의 역할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Berk, 2002).

부모효능감은 부모가 그들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이며, 부모가 적절하게 자녀의 양육 및 훈육을 할 경우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자녀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적절히 사용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 ·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Miller(1988)는 부모효능감은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부모의 효능감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적 특성임을 강조했다. 이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일수록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 ·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Coleman과 Karraker(1997)의 연구에서도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지만, 반대로 부모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함께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한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혼란을 경험하며, 부모로서의 자질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김영철 · 이영선 · 이호준, 1997). 물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을 100% 확신하지 못하며,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황에 맞는 부모의 반응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신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효율적인 반응과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바람직한 자녀양육 행동과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며(우희정 · 이숙, 1994), 안희정(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신이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로 자녀를 다룰 때 더 능숙하게 한다고 했다. 어머니 자신이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감독과 관찰이 많아지고 자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 뿐만이 아니라 자녀양육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Coleman & Karraker, 1997).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좋은 부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자로서 부모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망을 밀접하게 형성한 부모들이 부모역할 수행에서 느끼는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했다. 이러한 효능감은 사회적 환경, 인지적 요인, 우울이나 불안감, 편안감, 갈등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부모효능감은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칭찬에 의해 강화되며(Crockenberg, 1981), 부모효능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바람직한 자녀양육 수행에 차이가 생긴다고 했다(Shumow and Lomax, 2002). 즉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

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Coleman & Karraker, 1997 ; Dumka, et al, 1996).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 · 사회적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의가 높은 반면(현온강 · 공인숙 · 김영주 · 이완정, 1997),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확고한 신념이 없어 대다수의 부모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안지영, 2001).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 볼 때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시기의 부모들은 주변의 과열된 조기 교육이나 자녀의 원만한 학교적응에 대해 영향과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부모로서 가지게 되는 자긍심과 만족도는 부모의 구체적인 역할수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현온강, 1994; Hanes & Dunn, 1978). 즉 부모의 자긍심은 아동의 행동과 발달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으로 부모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지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 실제에 영향을 주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Hetherington와 Martin(1986)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 관계라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부모-자녀 관계를 상호 영향의 관계로 보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생태학적 관점의 대두로 부모가 자녀 양육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부모 자신과 아동의 특성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역할기대,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등과 관계함을 강조한다(Luster & Okagaki, 1983; Belsky, 1984; 신숙재, 1997).

이처럼 부모자녀의 관계를 다루는 많은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왔다(박영애, 1995; 이동영, 1997).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모효능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수준, 수입, 직업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탐구하였는데(안지영, 2001; 문혁준, 1999), 먼저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오경숙 · 한유미(2006)의 연구와 어머니 자신의 교육수준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자신의 자긍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송미혜 · 송연숙 · 김영주 2007; 문혁준, 1999; 이영환 · 오미연, 2006)의 결과를 볼 때,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를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부모역할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부모 스스로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수입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슬기 · 전귀연 · 김수경, 2007; 오경숙 · 한유미, 2006)와 아버지의 수입이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차은영, 1987; 허선자, 1992; 민현숙, 1997; 김정옥, 2003)에서 보여지듯이 부모의 소득 수준은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부모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연구(한유진 · 김선애, 2007)와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아버지 역할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김정옥, 2003; 민현숙, 1997)는 직업에 만족한 아버지 일수록 자녀와 질적인 시간을 보내며, 부모효능감 역시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부모효능감과는 관계가 없다

는 문혁준(2000)의 연구결과를 볼 때 직업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다른 상황적 요인들과 함께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요인으로 추측되어 진다.

그 밖의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클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며, 이러한 태도가 자녀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우희정 · 이숙, 1994). 부모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여 문제 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며 상황에 맞는 융통성과 일관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odell & Tyler(1981)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Dumka, et al, 1996; Coleman & Karraker, 1997).

어머니의 효능감에 대해서 알아본 최형성(2002)은 우리나라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의 평균 수준은 높은 편이며, 효능감은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자녀의 기질,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효능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자녀양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바람직한 자녀 양육행동과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연구한 Bigner(1977)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은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최근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오경숙 · 한유미, 2006). 이처럼 부모효능감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매우 유의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

들 간의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각 연구의 초점이 되는 부모효능감이 아동의 발달적 사건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동일적 사건의 경험이라도 부모 개인의 배경변인과 부모의 성격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가족의 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이 부모 공동의 관심사이자 공동의 책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므로 부모효능감 또한 가족의 구조와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효능감을 파악하고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효능감과 관련 변인

1) 성격특성

(1) 성격특성의 개념

인간은 상황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으로 반응하지만 여러 다른 상황에서 반응하는 방법 사이에 하나의 유사성을 이루는 일관된 성향이 있다(홍숙자, 1999). 이러한 일관성이 바로 성격이며 이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가능해진다.

Allport(1961)는 성격이란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개인 내부의 정신과 신체적인 체제의 역동적 조직이라고 정의 내린바 있다(유가호·박선주, 2004. 재인용). 즉 성격은 한 개인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하도록 결정지어 주는 개인 내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행동유형으로,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인간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격의 형성 및 발달에 관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유전적 요소를 중요시하며, 사회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환경에 의한 성격형성이 중요시 되는데 특히 환경적 요인은 개인을 둘러싼 주변적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성격형성에 있어 부모와 형제자매 등과 같은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격의 경향은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한 사람의 독특한 성격유형 체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성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달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개인 행동의 경향성을 결정하게 되므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적응방식을 성격을 통해 결정 한다고 볼 수 있다.

Eysenck(1973)는 성격을 개인의 유형이나 특질에 따라 내향성-외향성, 안정성-불안정성으로 분류했으며, 이 두 차원이 합해져서 인간행동의 주요 부분을 설명한다고 했다(김연옥 · 김연희, 2002. 재인용).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 간에는 행동 상에 수많은 차이가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내적 자극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반응, 기분에 관심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활동적이며, 충동적이고 사교적인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피하려 하지만 대조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극을 추구한다고 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상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Beck(1967)이 개인의 성격을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으로 구분 한 이후 계속된 성격-사건 일치 가설연구들은 관계지향성의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생활사건, 즉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이나 거절당함으로 인해 사회적 결속이 붕괴되었을 때 급격히 우울해 진다고 하였으며, 자율

지향성의 사람들은 개인의 자율적 성취사건에서 실패 했을 때나, 자신의 독립적 활동에 방해 받았을 때와 같은 자율성과 관련된 부정적 사건을 경험 했을 때 우울해진다고 보고하였다(홍미혜, 2000. 재인용). Beck(1983, 1987)은 개인의 성격유형을 재차 강조하여 관계지향성 유형의 사람들은 친밀감, 수용, 이해에 대한 욕구(need)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며, 특히 타인의 거부나 비난에 민감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반면 자율지향성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한 목표와 역할 기대의 성취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다. 자율지향성의 사람들은 개인의 독립성이나 자신이 설정한 목표 성취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인의 비판이나 요구는 덜 민감한 반면, 자신의 목표 성취에 방해를 받는 것에 민감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관계지향성 성격 유형의 개인들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나 각종 정보에 의존하는 반면, 자율지향성 유형의 개인들은 스스로 정한 목표의 성취에서 만족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성격에 의한 관점은 개인의 주어진 상황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그 기대에 부응하면 정적인 강화를 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상황이 요구하는 형태로 성격특성을 바꾸어 나가게 된다. 이는 주어진 환경이 같고, 같은 사건을 맞이할 때도 개인의 특성인 성격에 따라 개인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격 특성은 부모의 자녀 양육이나 대처 전략, 또는 적응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부모의 성격특성과 부모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을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으로 강조한

Beck(1987)의 제안에 따라, 부모의 성격 특성을 부모효능감을 예측해주는 인지적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2) 성격 특성과 부모효능감

한 개인의 성격 특성은 전 생애를 통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근의 여러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경험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성격 형태를 얻게 되어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연령 단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성격변화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한다(윤진, 1985).

성격의 안정성에 관해 Erikson(1963)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 과정을 여덟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일반적인 문제점과 여러가지 갈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각 단계는 누구에게나 고정된 순서로 전개되며,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갈등은 문화와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Schaie(1991)는 일단 형성된 성인의 성격은 상당 정도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요인과 상황적 여건에 의해 통합되어 구별되어 지기도 하고 변화에 대한 잠재성이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을 근거로 하여 성인 성격의 여러 요인들이 변화한다는 증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초의 환경 제공자이자 교육자이고 보호자이며 가치 전달자, 훈련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역할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부모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란 어렵다. 때로는 부모의 성격이나 가족원의 갈등으로 인하여 또는 자녀의 기질이나 문제행동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성격은 부모의 양육태도 못지않게 자녀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

는 변인이며, 부의 성격 특성 보다 모의 성격 특성이 자녀의 성격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된 바 있다(유가효 · 박선주, 2004).

Freud는 인간의 기본적 성격형성은 유아기와 아동기 초기에 그 기초가 형성된다고 하였고, 유아의 행동이나 성격발달이 부모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가운데 지적, 정의적 특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조복희, 2000). 이는 자녀의 성격형성에 부모의 성격이나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부모는 유전적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직접적 양육행동으로서 자녀의 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Belsky(1984)는 유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보다는 부모의 개인적 특성이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하여, 돌보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아동이라도 어머니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면 아동을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모의 정신건강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지각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Lockwood, 1983), 부모의 성격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양육태도나 행동을 통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이내수, 1987; 이진숙, 1989; 최윤희, 1998; 한중혜, 1980), 부모의 애정적, 수용적 태도가 아동에게 좋은 성격을 갖게 한다고 보고했으며, 유가효와 박선주(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격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부모 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박현숙(2003)은 어머니의 전반적인 놀이성과 쾌활성은 부모효능감과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성격은 그가 하는 행동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대처방식과 밀접한 상관이 있어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부모의 성격특성이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성격 특성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효능감 또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추측 해 볼 수 있다.

개인의 행동 역시 성격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며, 생활상의 여러 영역 즉 감정표현이나 의사결정, 자녀양육 등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부모의 성격특성은 자녀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며, 부모의 성격특성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새로운 요구와 적응이 상충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성격특성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효능감은 다르게 지각 될 것이다. 개인이 같은 시간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성격특성에 따라 부모효능감 수준이 높을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떤 형태로든 개인에게 긴장과 위기의 감정을 주게 되므로 개인에 따라 부모효능감을 느끼는 수준 또한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성격유형에 따른 부모효능감을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부모효능감과 관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1976년 Cassel, Cobb, Caplan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개인의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

해 연구되기 시작했다.

인간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데, 개인이 얻는 무형과 유형의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 하며,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으로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행동이나 행위를 포함한다. 즉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써 물질적, 심리적, 정보적인 도움 등을 포함하여 설명 할 수 있다.

친구, 친척,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우울증, 가정 내 스트레스,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 아동의 부적응 문제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기영, 1991; Garbarino & Kostelny, 1992).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신장시켜 당면한 여러 문제 들을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며(Craig, 1983), 주변인들로부터 자신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어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유지영 · 김명자, 1996).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개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활에 만족감을 높이고 심리적 · 신체적 · 적응능력을 높여준다(이경주 · 신호식, 1997; 문혁준, 2000). 사회적 지지가 제공됨으로서 개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보호한다는 유연옥(1999)과 최성열(2001)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정의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성영혜(1993)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을 일컫는 말로써 개념화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표현,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 중의 하나나 그 이상을 포함한 대인 관계적 거래를 통하여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했다.

최성열(2001)은 사회적 지지는 부모 · 형제 · 친척 · 친구 · 교사 등을 포

함한 의미 있는 대상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애정 · 신뢰 · 정보 · 물질적 원조 · 자기보고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했으며, 김이레(2003)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작용하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정의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직장동료 등과 같은 안정된 사회 관계망 속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House, 1981),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측면인 정서적 · 심리적 안정감과 자긍심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촉진시킨다(Antonucci, 1990).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관심, 유효한 원조, 환경에 대한 정보 및 평가를 포함하는 대인적 관계이며, 주고 받는 것으로서 시간과 에너지, 물질적 측면에서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사회적 지지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지가 제공하는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구조적인 측면이란 개인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대인관계망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기능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과 연결된 관계망의 크기, 밀도, 구성원간의 접촉빈도, 거리, 친밀성, 동질성 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객관적인 지지자원이 있다는 사실과 지지를 제공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타인으로부터 객관적인 지지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인이 지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지로서 이용할 수 없는 자원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문정, 2003).

이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

모가 사회적 관계들로 부터 도움을 받아 가족전체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가 자녀양육을 통해 지각하는 사회적 자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와 부모효능감

사회적 지지란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으로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행동이나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 지지가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를 통해 형성된 상호친밀하고 복합적인 사회관계망은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과 자긍심의 근원이 될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신장시켜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부모는 가족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으로서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성격발달이나 정서적 특성, 심리적 만족과 성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응을 이루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주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알려졌다(한미현, 1996),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구순주 · 최보가, 1998).

Cobb(1976)은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생활주기의 관점에서 임신기간, 초기, 아동 발달기, 위기적 상황, 질병기 및 회복기 등 생애사건과 전환기에 필요한 요인으로서 자신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부모로서 가치 있는 존재로 믿도록 이끄는 정보임을 강조했다. 부모가 사랑과 존중, 수용과 안정, 이해 등과 같은 긍정적인 자원을 지각할 수 있다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유진과 최유나(2004)는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긍정적 자원이 된다면 자녀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사회적 지지가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동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사회적 지지가 풍부 했던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다 양질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갖게 된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부모는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사회적 지지가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부모가 지각한 긍정적인 감정표현 즉 사랑, 존중, 인정, 이해 등과 같은 긍정적 자원이 되어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행위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사회적 지지는 주로 부모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복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자녀의 행동과 발달특성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Dunst, 1986). 최근에는 사회적 지지가 제공됨으로써 개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유연옥, 1999; 최성열, 2001),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개인의 정신 건강 및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활에 만족감을 높이고 심리적 · 신체적 · 적응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이경주 · 신효식, 1997; 문혁준, 2000).

Belle(1982)은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 구성원간의 친밀감 또는 정서적 안녕을 주는 사람과의 접촉 횟수보다 양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도움을 주거나 급한 상황에 의지할 수 있는 지지자의 존재 여부가 사회적 지지로서 부모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문혁준, 2000. 재인용).

이는 곧 사회적 지지가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효능감으로 연결 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받아 향상된 부모효능감이 부모의 양육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혁준(2000)은 부모가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부모역할 수행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보고했으며, 우희정(1993)은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부모 자신감인 효능감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런 부모 자신에 대한 기대는 사회적 지지와 함께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부모효능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서 부모에게 사회적 지원이 많을 경우 부모효능감은 높아지지만 사회적 지원이 적으면 부모효능은 낮아진다고 보고했다(신숙재, 1997). 도현심 · 김지신(1997)과 황영주(199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도 높게 나타나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온정성과도 관계가 깊다고 지적했다.

부모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서적 지원이 많다고 느낄수록 자녀 돌봄이나 인지적 자극의 제공이 더 쉬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은혜, 1997), 아동의 발달적인 접근에서도 부모로부터 지지, 애정, 긍정적인 지지를 충분히 경험한 자녀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자녀의 높은 수준의 자아통제와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도 중요한 근원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Woods, 1972; Belle · Longfellow, 1985; 김선자 · 조옥귀, 2003).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부모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주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조언과 지도를 받거나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태도와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 및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수로 이

해 될 수 있으며, 부모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부모효능감을 높거나 낮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부모효능감을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여 부모효능감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자녀유능감

(1) 자녀유능감의 개념

아동의 또래집단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1980년부터 아동 유능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Ladd, 1999).

아동 유능감의 개념은 연구마다 다양한데 그 이유는 문화마다 아동이 적응해야 하는 바람직한 기준과 가치가 다양하며,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기술이 달라지고 아동이 적응해야 하는 사회적 맥락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해당되며,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전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동에게 이전과 같은 급속한 신체적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획득된 지식이나 운동기술이 점차 세분화되고 정교화 되는 시기로서, 학교생활을 통한 학습기회를 통하여 지적 발달이 진행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아동은 학교 적응과 함께 새로운 환경과 또래 친구들과의 전반적 학교생활 뿐 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초등학교 이전 즉 유치원 교육에서의 주요개념은 흥미, 욕구, 관찰, 탐구, 조작 작업, 성장, 발달 놀이 등이며 표면적 교육과정(explicit curriculum) 못지 않게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중시한다(이영석 · 이경영, 1989).

이대균(1997)은 그의 연구에서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흥미와 선택의 기회를 존중하는 놀이 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 수준이 다른 여러 가지 교육적 자료들이 제시되며, 교사는 주로 수업의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지만,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다르게 교과별로 각기 독립된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독자적의 내용영역을 가지게 되며, 정보와 기능 지식 등이 교육의 주요 개념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무엇보다 교육활동의 주체가 아동 자신이 아닌 객체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유치원과 확연히 다른 초등학교 입학초기의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자녀의 성격 및 자녀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적 수행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평가과정 즉 생의 각각 상이한 영역을 다루어내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진화 · 전경숙, 1995). 즉 긍정적이고 높은 자기 유능감의 소유자는 자신의 생활 또는 대인관계에 잘 적응하면서 자아실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반면, 부정적이고 낮은 유능감의 소유자는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며 부적응적인 태도와 생활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공인숙과 최연실(1994)의 연구에서 아동 유능감을 아동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자신의 유능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종혜(1996)는 아동의 유능감이란 아동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인지 및 언어 영역이 발달하고,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시켜 나가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성인의 도움을 얻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아동 유능감이란 아동의 능력을 지칭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구조로 사

용될 수 있으며, 어떤 결손이나 결함보다는 긍정적인 노력을 더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Hammer과 Turner(1996)는 아동의 발달을 크게 신체적인 운동능력 발달과 사회능력 발달, 그리고 인지능력 발달로 구분했다. 아동기의 운동능력 발달은 힘과 근육이 증가하며, 호흡기 질환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나 일반적으로 건강은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좋다. 아동기의 사회능력 발달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이 복잡해지고, 상호규제의 기준이 부모통제에서 또래 통제로 옮겨지기 때문에 또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은 자기중심성이 감소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나타나나 구체적인 사실에 한정되고, 기억과 언어기술의 향상으로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배우는데 특별한 욕구와 힘을 나타내게 된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아동 유능감이 아동의 성별, 연령 등 개인적 변인뿐만이 아니라 부모 및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등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동의 성별과 연령 중 성별의 영향은 운동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우희정, 1993; 이주리, 1994; Harter & Pike, 1984; Cause, 1987).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Cause(1987)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민주(1994)는 각 영역에서 아동의 유능감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으나, 유아와 초등학교 1, 3, 5 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주리(1994)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한 Harter(1985)의 연구에서는 학업능력, 사회적 능력에서는 성별의 큰 차이가 없으나 신체적 능력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생물학적 측면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성숙하고 발달해 있지만 신체적 능력이나 운동기능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으며, 사회학적인 면에서 볼 때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도 남아에게 자유와 특권을 더 허용한다고 했다

(김경연, 1987). 그러나 Ford(1982)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배기조(1992)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낮다고 밝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유능감을 규명한 연구는 유능감의 각 영역은 성별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성별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다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일관성 있게 운동영역과 신체적 영역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능감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비록 아동의 전반적인 유능감에서 성별 차이가 없더라도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되는 특정한 영역에서는 능력에 대한 지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 볼 때 아동의 영역별 유능감에 대한 대체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역별 유능감의 뚜렷한 성별 차이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아동들의 유능감은 영역에 따라 다르다는 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능감의 발달이 세부영역에 따라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능감은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부모나 친구, 형제, 교사 등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거나 자신의 경험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유능감이 형성되고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유능감과 아동유능감을 동일한 개념으로 재정의 내리고자 하며, 능력의 개념에 한정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발달 특징인 신체적 발달, 사회적 발달, 인지 발달을 자녀유능감의 영역에 맞추어, 운동능력 영역, 사회능력 영역, 인지능력 영역으로 구성했다. 이에 부모가 지각하는 자

녀유능감을 부모효능감을 예측하는 인지적 요소로 간주하고자 한다.

(2) 자녀유능감과 부모효능감

자녀의 사회적 기술 습득은 최초의 사회화 과정 즉 가족을 통해 습득되며, 가족의 심리사회적 환경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감은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며, 아동이 생후 최초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대상인 부모는 아동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접촉을 하게 되므로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기의 부모는 설명 단계(interpretatioa stage)에 해당된다(박성연, 2003). 부모는 자녀의 끊임없는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과 기술 습득을 돕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닌 세계관과 가족의 가치를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자녀유능감이 기본적으로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달되며, 아동의 다양한 행동양식은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됨을 의미한다.

부모의 반응과 양육은 자녀의 유능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다(Maccoby & martin, 1983; Cohn, Paterson & Christopoulos, 1991). 부모의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은 아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가정환경 속에서의 부모의 영향은 자녀의 유능감 발달에 있어 기본이 된다.

자녀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이 있다.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은 아동의 기질과 성별을 들 수 있으며, 가족적 요인으로는 형제의 수, 형제의 구성, 출생순위, 부모, 가족의 구조들이

있다. 그 외 사회적 영향으로는 또래와의 관계와 교육기관의 경험이 있는데 생득적으로 타고난 요인과 후천적인 학습 모두 자녀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류용상(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부모들의 관심과 염려에 비해 그 적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은 간과되기 쉬우며, 알고 있어도 지나쳐버리기 쉽다고 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을 연구한 최태석(1993)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 가운데 친구, 교사와 같은 사회성 및 성격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바라보는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에 대해 교사가 바라보는 아동의 적응에 비해 어머니의 자녀평가가 더 높다고 보고했다. 이는 아동을 바라보는 부모와 교사 사이의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원만하게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부모 역시 자녀의 학교 적응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의 유능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Maccoby & Martin, 1983), 부모의 우울(Zahn-Waxler, Cummings & Mcknew, 1984),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Putallaz, Costanzo & Smith, 1991),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감(Mitchell, Annette, 1999)과 함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자녀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오늘날 부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아동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중요한 타인이 주는 사회적 평가 또는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아동이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어머니는 아동의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유능감과의 관계를 설명한 국내선행 연구에서 서미정(1999)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에 능력에 대한 지각, 즉 자녀의 유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가 실질적인 자녀의 유능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믿는 만큼 자녀의 유능감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김경혜(1994)는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지적 특성에서 인지적 기능보다 비인지적 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교육목적에서 교사가 자녀에게 학문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들이 학문적 기술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부모가 자녀를 높게 평가할 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Ladd와 Price(1987)는 부모의 자녀평가는 아동의 실제능력과 관계가 높다고 밝힘으로써 부모의 자녀평가가 자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증적인 성취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가 평가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는 부모로서의 자신감인 부모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환경은 부모에서 또래의 친구로 확장되는데, 사회적 경험을 통해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행동, 가치관, 지식 등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을 부모를 통해 인지하게 되며, 이러한 유능감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발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자극을 받게 되면, 외부와의 적응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대한 자신감을 세우는 등 유능감을 증진하는 새로운 표현이나 시도 등을 하게 된다.

그동안 자녀유능감을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자녀유능감과 가정환경의 변인에 대한 연구

(이혜영, 1985; 심숙희, 1987)가 있으며, 양외점(1993), 김영지(1994), 손혜련(1996)은 자녀유능감과 어머니의 애착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영향력을 설명했다. 최근에는 어머니와의 연구가 이루어지던 것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장가영, 1990; 최경순, 1992; 최한순, 1995; 정경숙, 2000)와 자녀유능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원희(1997)의 연구에서는 자녀유능감과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다.

가정환경 속에서의 부모의 영향은 자녀의 유능감 발달에 기본이 되며(Cohn, Paterson & Christopoulos, 1991), 부모의 양육과 반응은 자녀유능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술, 태도, 신념은 아동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Parke & O' Leary, 1975)을 끼치며,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부모와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행동양식을 교류하고 수용한다(Harrist, Pettit, Dodge & Bates, 1994).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부모의 현재 자녀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자녀유능감은 이제 막 시작된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자녀유능감은 부모효능감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개념이기 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 가치를 반영하는 특수성을 지니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유능감을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유능감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4) 가족관계의 질

(1) 가족관계 질의 개념

가족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단위이자 개인이 최초로 대인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사회환경으로서 아동의 신체, 정서, 사회 및 대인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체계이다.

가족관계란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생과 동시에 부모와 함께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 집단인 하나의 가족으로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간의 기본적 인성은 유년기에 형성되며 이 유년기의 생활이 주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짐을 생각해 볼 때 가족은 인간 생활의 기초라 할 수 있다.

박현숙(2003)은 가족관계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사랑을 배우고 의무와 권리를 실천하는 인간관계라고 했다.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조부모-손자녀 관계 등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가족관계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가족관계는 여러 구성원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역동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화목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관계는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가족 형성기에는 부부에 의해 상호작용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족 확장기에는 부부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관계가 구성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가족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민주적 생활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는 권위적이거나 어느 한쪽의 희생을 당연히 여겨서도 안된다.

오늘날 급속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제도들은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켰으며, 그에 따른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감 또한 감소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가족은 산업화 · 도시화 · 서구화 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개인주

의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행복과 자율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가족의 내적 구조와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방식을 전개시켰다.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출산율 저하, 결혼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와 같은 일련의 이슈들은 사회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가족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는 개인의 의식이나 행위를 따라 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지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윤홍식, 2004).

Parsons의 체계이론에 의하면 가족관계에서 모든 성원이 얻게 되는 가족의 복지감은 잠재성 기능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통해 만족스럽게 지내는 상태를 말하며, 어은주와 유영주(1995)는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적 관계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가족에 있어서의 구조란 가족구성원들간의 권리와 의무로서 행하여야 할 행동과 행하여서는 안 될 행동을 포괄하고 실제 행하여지고 기대되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제로 가족원과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가족원들 모두에게 그렇게 행동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게 된다.

가족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맺게 되면 가족원들은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맺게 되고, 개인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가족원들은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개인과 가족전체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 역할 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는 개인 간의 심리적 정서적 구조인 개인적 심리적 관계를 포괄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 가족 행동의 총체이며 가족 상호 작용의 역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유영주외, 1996).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 유형은 가족관계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Hudson, Acklin, Bartosh(1980)는 가족 전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척도를 개발하였고, 연구자들은 이 척도가 단순히 가족관계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quality of family relations)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했다. 이들은 가족관계의 질을 “가족관계에서 야기되는 가족구성원들간의 갈등의 심각성 정도와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적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개인은 높은 적응수준과 안녕감을 지각한다고 보고 하였다.

Turk(1968)는 'Total Family'의 철학을 강조하여 의식주가 해결된 이상 가족관계를 고갈시키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가족 내 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라고 하여 가족 속에서의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오정옥, 1999. 재인용).

가족은 성장과 발달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생활주기마다 그 나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으므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 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가족관계의 질과 부모효능감

가족은 사회 구성 조직의 가장 원초적인 집단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발전과 질서유지에 커다란 기능을 수행하며, 가족원들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정서적 ·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

면을 동시에 갖는다.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가족관계를 통해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갖게 되며, 사회적 태도 및 행동양식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데 개인의 성격이나 인격, 사회적 태도, 신념, 가치관 형성 등이 가족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자녀의 출생으로 부모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자녀 출산으로 가족의 수가 단순히 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 복잡한 상호작용 유형과 관계망이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즉 자녀가 취학하게 되고 친구를 사귀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넓혀 나감에 따라 부모 역시 가족 밖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옥선화 외, 2006).

가족관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김태현 · 임선영, 2004),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 · 이영자, 2005). 즉 가족관계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가족원의 심리 · 정서적인 요인인 격려와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정보화 기술을 함께 사용하면 대화나 친밀감을 형성 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의사소통과 친밀감이 증대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방은령, 2000; 이수진 · 홍세희 · 박중규, 2005). 이처럼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관계적 반응이 달라지며, 부모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들은 학업 및 직업 수준에 있어 성취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유미숙 · 하은혜 · 김혜진, 2004).

가족관계는 가족원의 기능적인 대처방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기능적인 대처방식이란 가족원간에 관계적인 반응을 대응하여 갈등과 스트레스

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의 질 역시 가족관계에서 야기되는 가족구성원들간의 갈등과 가족 스트레스를 측정하게 된다.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과 스트레스는 가족의 생활사건, 개인이나 가족의 지각과 자원,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가족이 겪게 되는 생활사건은 기존의 가족생활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건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스트레스를 유발할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에 가족의 평형을 위협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Hudson(1980)은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적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개인은 높은 적응수준과 안녕감을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곧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의 행동이 부모-자녀간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Boss(1988)는 그의 연구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으로, 그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보다는 이것에 직면한 가족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결국 대부분의 가족은 가족생활 주기의 단계별 과제를 성취시키기 위한 수행과정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게 되는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되며, 가족관계의 질은 가족의 갈등과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직접적 ·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취업모일 경우 시간, 에너지, 헌신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역할 즉 근로자, 부모, 배우자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Greenhaus & Reutell, 1985), 취업모가 겪게 되는 이러한 부모역할에 대한 불만족은 부모역할에 대한 낮은 만족감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 직업 역할과 어머니 역할간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Davis(1985)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관계 안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인지 수준 역시 높다는 결과는 남녀의 사회화와 성격특성,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이 각기 다른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아버지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서미정, 1999)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앞으로 연구자의 관심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가족관계의 질은 자녀의 발달시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가족관계의 질은 부모-자녀 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족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같은 가족 구성원이라고 해도 일상적인 생활사건을 통해 각자가 지각하는 가족관계의 질 역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관계의 질과 부모효능감을 함께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갈등을 가족 내에서 이해관계의 양립, 자원과 업무 배분의 비합리성, 지각의 차이 등이 존재 할 때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적 내지 적대적 상호 작용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관계의 질을 파악하고 부모효능감과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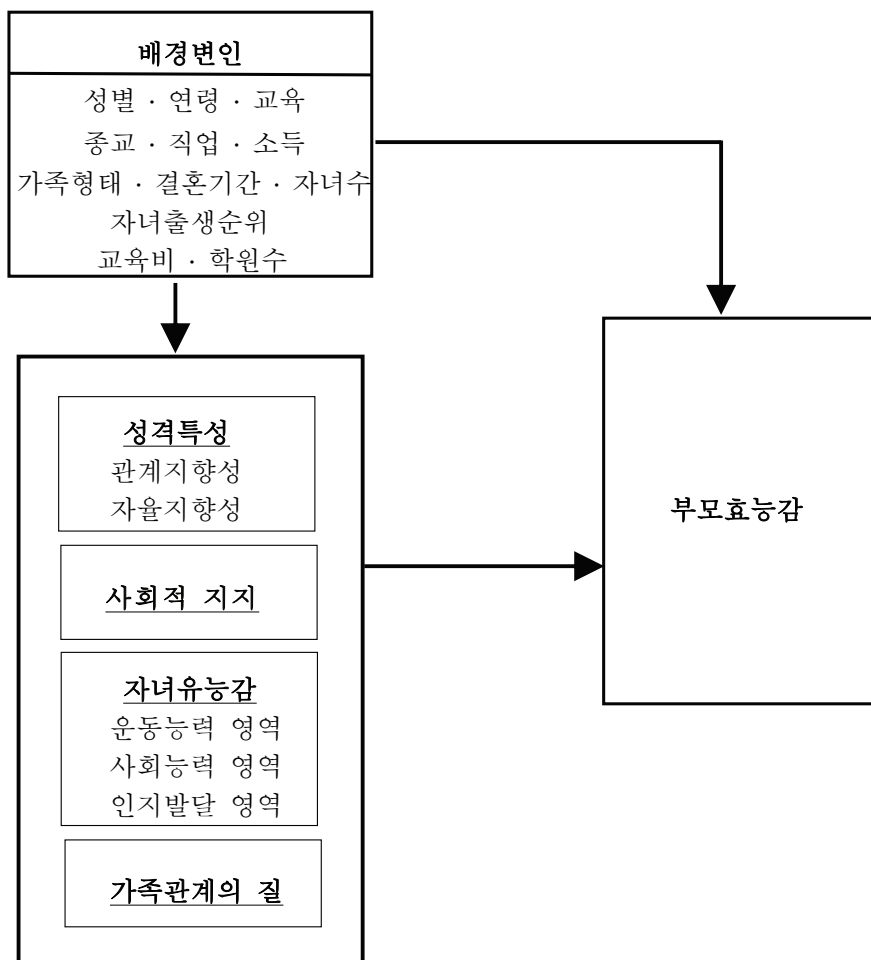
<연구문제 2>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배경변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진 부모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설정하여 부모효능감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적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변수들에 대해 개념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이 연구의 근본적 바탕이 되는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개념에 대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성격 특성

본 연구에서 부모의 성격은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으로 나누었다. 관계지향성 성격의 특징은 타인의 기분과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는 유형이며, 자율지향성 성격의 특징은 타인보다는 나의 계획이나 일에 더 많은 집중을 하는 유형으로써 두 요인이 부모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성격 유형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1) 관계지향성: 의존, 친밀감, 보살핌의 욕구가 강해서 적극적인 대인 관계를 맺는 유형을 말한다.
- (2) 자율지향성: 개인의 자율성, 행동, 표현의 자유, 자기가 설정한 목표의 성취를 중시하는 유형을 말한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성영혜(1993)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모가 지각한 긍정적인 감정 즉 사랑, 존중, 이해, 수용과 같은 긍정적 자원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물질적, 심리적, 정보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3) 자녀유능감

자녀유능감은 김명혜(2006)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유능감을 운동능력 영역, 사회능력 영역, 인지능력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모가 가정, 교육기관, 또래관계 상황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자녀의 능력을 지각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4) 가족관계의 질

가족관계의 질은 Hudson, Acklin, Bartosh(1980)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을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로 정의한다.

5)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최형성(2002)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 부모효능감이란 부모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IV.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를 위해서 설문조사가 사용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13문항과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10문항, 사회적 지지를 묻는 12문항, 자녀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21문항, 가족관계의 질을 묻는 14문항, 부모효능감을 묻는 15문항을 포함 총 85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 >.

1) 연구 대상자의 배경변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종교, 직업, 소득, 가족형태, 결혼기간, 자녀의 수, 자녀의 성별과 자녀의 출생 순위, 자녀의 교육비와 학원 수 등 13개 문항으로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신숙재, 1997; 최형성, 2002; 안지영, 2001)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2) 성격특성척도

본 연구에서 성격특성 척도는 Robin, Ladd, Welkowitz, Blaney, Diaz, Kutcher(1994)가 수정한 Personal Style Inventory(PSII)로 양정윤(1999)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10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성격 특성은 크게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으로 나뉘며, 의존성과 친밀감, 보살핌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지향성과 타인 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행동을 중시하는 자율지향성의 두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 5점을,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특성인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 각각의 신뢰도는 관계지향성이 .72, 자율지향성이 .70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척도는 신숙재(1997)가 제작한 사회적 지원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원척도는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 두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편 이외의 주위사람으로부터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주위의 도움’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이란 개인의 가족이나 친구, 친척, 이웃 등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남편의 지원’에 대한 문항을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부모에게 동일한 사회적 지원을 묻기 위함이다.

‘주위의 도움’을 묻는 문항 가운데 중복되는 문항을 통합하여 1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 5점을,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는 5점 Likert형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큰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92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자녀유능감 척도

자녀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2)의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전경숙(1992)이 번안 구성한 척도와 서미정(1999)과 신호정(2005)이 구성한 척도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유능감 척도는 세 개의 영역에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자녀유능감의 유형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자녀의 운동능력을 파악하는 운동능력의 6가지 문항과(3. 6. 9. 12. 15. 18번 문항),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묻는 사회능력 영역의 9가지 문항(2. 4. 8. 11. 14. 15. 17. 19. 20번 문항), 자녀의 학습과 일상생활에서의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인지능력 영역의 6가지 문항(1. 5. 7. 10. 13번 문항) 등 이다.

각각의 신뢰도는 운동능력 영역이 .73이며, 사회능력 영역은 .83, 인지능력 영역은 .89로 자녀유능감의 하위척도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5) 가족관계의 질 척도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Hudson, Acklin과 Bartosh(1980)가 개발한 가족관계의 질 척도(index of family relation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원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문제의 범위, 심각성,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Hudson(1997)이 설계한 것으로 가족전체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파악해 가족관계를 검토 평가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질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국내 연구에서 최길례(2002)와 김영화(2006)가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후 보완하여 사용했다.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인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진정으로 아껴준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큰 기쁨이다’와 같은

문항과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다.’ ‘우리 가족은 자주 다툰다.’ 와 같은 부정적 문항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형으로 측정되며,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6) 부모효능감 척도

부모효능감 척도는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문항으로 신숙재(1997)가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부모의 신념과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유능감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불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이들 척도의 문항 중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부모효능감 15개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부모효능감은 부모역할에서의 부모신념, 부모자신의 유능감,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문제해결 능력 기술에 대한 부모자신의 기대를 측정하는 문항과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부모효능감 문항은 ‘정말 그렇다.’ 5점을,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모효능감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신뢰도는 .73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표 1> 변인별 신뢰도계수 및 평균값

종류	문항수	점수범위	신뢰도
성격특성			
관계지향성	5문항	5~25점	.72
자율지향성	5문항	5~25점	.70
<u>사회적 지지</u>	12문항	12~60점	.92
<u>자녀유능감</u>	총 21문항	21~105점	.89
운동능력 영역	6문항	6~36점	.73
사회능력 영역	10문항	10~50점	.83
인지능력 영역	5문항	5~25점	.89
<u>가족관계의 질</u>	14문항	14~70점	.80
<u>부모효능감</u>	15문항	15~75점	.73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 성격특성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그리고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학교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자녀의 기초적인 인지과제 해결과 사회적 기능의 숙달을 위해 부모의 관리 및 지도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모의 시간투자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과 2학년)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2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 당 3개 학급을 선정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2개교에서 각각 2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10월 1일~10월 20일까지 서울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한 후 학부모 3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본 연구자에 의해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설문 내용에 응답을 꺼리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문항들은 전공분야의 교수의 평가와 조언을 받아 전반적으로 의미 파악이 명확한 문항으로 재조정 한 후에, 본 조사용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1월 1일~11월 21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표집방법은 할당표집법(Quota sampling)을 사용 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와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배부 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지 못한 설문지와 부실하게 기재되어 분석에 사용 할 수 없는 설문지 80부를 제외한 총 420부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420명 이었으며, 남성이 101명(24.0%), 여성 319명(76.0%)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9세(SD 4.51)로 연령대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30세 이하가 1.7%, 30~39세가 57.4%, 40~49세가 39.0%, 50세 이상이 1.9%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전체의 49.5%이고, 대졸이상이 45.2%, 대원졸 이상이 5.2%로 전체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집단은 전체의 51.0%였으며, 종교가 없는 집단은 49.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전업주부가 41.1%, 상업·서비스직이 22.1%, 사무직·공무원이 17.9%, 기술직 2.9%, 전문직 3.6%, 관리직 3.8%, 파트타임·기타직이

8.3%였다.

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인 전체의 43.8%였으며, 300만원 미만인 28.6%, 400만원 미만인 15.7%, 400만원 이상이 11.9%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가 80.2%로 월등히 높은 분포를 이루었고, 한부모+자녀 가족형태가 4.5%, 조부모+부부+자녀 가족형태가 15.2%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족형태는 핵가족 형태였으며, 결혼기간은 10년 미만이 전체의 50.2%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6.9%, 20년 이상이 2.9%로 평균 결혼기간은 11년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이 20.0%, 2명이 67.9%, 3명이 11.2%, 4명이상이 1%로 응답자의 자녀수는 평균 2명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전체의 51.2%, 여아가 48.8% 나타났으며, 자녀출생순위는 첫째가 68.1%, 둘째가 26.9%, 셋째이상이 5%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교육비는 전혀 쓰지 않는다고 응답한 2.6%와 50만원 미만이 6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50~99만원이 22.1%, 100~149만원이 3.6%, 150~199만원이 1.2%, 2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는 비율이 0.7% 였다. 자녀가 다니는 학원 수는 전혀 보내지 않는다는 4.5%와 1곳에 보낸다는 26.0%, 2곳이 43.0%, 3곳이 24.8%, 4곳 이상은 10.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연령은 30대 후반이 가장 많았고,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며, 종교의 유무는 각 51.0%와 49.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상업과 서비스직, 사무직과 공무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월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2.4%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전체의 80.2 %이상이 핵가족 형태인 부부+자녀 가족형태였으며, 응답자의 결혼기간은 평균 11년 이었다.

자녀수는 두 명이 67.9%로 가장 많았고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녀는 첫째 자녀인 경우가 전체 68.1%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여아가 비슷한 비율인 51.2%와 48.8%를 보였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68.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의 69.8%의 부모가 월 50만원 미만의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다니는 학원 수는 2곳 이상이 전체 69.5%로 과반 수 이상의 부모가 자녀를 2곳 이상의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류	N (%)	변 수	분류	N (%)
성별	남성	101(24.0)	가족형태	부부+자녀	337(80.2)
	여성	319(76.0)		한부모+자녀	19(4.5)
				조부(모)+부부+자녀	64(15.2)
연령	30세이하	7(1.7)	결혼기간	10년이하	211(50.2)
	30~39세	241(57.4)		20년이하	197(46.9)
	40~49세	164(39.0)		20년이상	12(2.9)
	50세이상	8(1.9)			
	평균	39세			
교육 수준	고졸	208(49.5)	자녀수	1명	84(20.0)
	대졸	190(45.2)		2명	285(67.9)
	대원졸이상	22(5.2)		3명	47(11.2)
				4명이상	4(1)
종교	유	214(51.0)	자녀성별	남아	215(51.2)
	무	206(49.0)		여아	205(48.8)
직업	전업주부	174(41.4)	자녀출생 순위	첫째	286(68.1)
	상업·서비스	93(22.1)		둘째	113(26.9)
	사무직·공무원	75(17.9)		셋째이상	21(5)
	기술직	12(2.9)	사교육비	없음	11(2.6)
	전문직	15(3.6)		50만원미만	293(69.8)
	관리직	16(3.8)		50~99만원	93(22.1)
	파트타임·기타	35(8.3)		100~149만원	15(3.6)
			150~199만원	5(1.2)	
			200만원이상	3(0.7)	
소득	200만원미만	184(43.8)	학원수	0곳	19(4.5)
	300만원미만	120(28.6)		1곳	109(26.0)
	400만원미만	66(15.7)		2곳	143(34.0)
	400만원이상	50(11.9)		3곳	104(24.8)
				4곳이상	5(10.7)
합계		420(100)	합계		420(100)

*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4.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인 조사대상자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인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후 검증 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인 배경변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V. 연구 결과

1.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

<연구문제 1>인 조사대상자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인 부모의 성격특성은 5점을 기준으로 관계지향성은 3.14점이었고, 자율지향성은 3.0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3.52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유능감 역시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운동능력 영역이 3.11점, 사회능력 영역은 3.59점, 인지능력 영역이 3.5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관계의 질은 평균 3.40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효능감은 평균 3.02점으로 부모효능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전반적인 수준

(N =420)

변 인	평균	표준편차
<u>성격특성</u>		
관계지향성	3.14	.60
자율지향성	3.00	.62
<u>사회적지지</u>	3.52	.77
<u>자녀유능감</u>	3.45	.54
운동능력 영역	3.11	.63
사회능력 영역	3.59	.64
인지능력 영역	3.56	.68
<u>가족관계의 질</u>	3.40	.42
<u>부모효능감</u>	3.02	.53

2.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차이

<연구문제 2>인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ANOVA,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분석결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부모의 성격특성은 크게 관계지향성 특성과 자율지향성 특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율지향성이 부모의 연령($p < .05$)과 직업($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첫째, 자율지향성의 차이에 있어서 연령을 30대이하, 30대, 40대, 50대로 구분한 결과 네 집단간의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네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율지향성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직업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한 직업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인 집단과 그 외의 직업 집단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즉 전문직 집단에 비해 그 외 집단인 사무직, 파트타임·기타, 전업주부, 상업·서비스, 관리직 순으로 부모의 성격 특성인 자율지향성을 높게 지각 했다.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배경변인(N)		성격특성		
		자율지향성		
		M	SD	D
연령	30세 이하(7)	2.80	.82	
	30~39세(241)	2.94	.59	
	40~49세(164)	3.11	.65	
	50세이상(8)	2.87	.30	
	F값	2.94*		
직업	전업주부(174)	3.01	.65	B
	상업·서비스(93)	2.95	.63	B
	사무직(75)	3.18	.58	B
	기술직(12)	2.85	.57	B
	전문직(15)	2.50	.54	A
	관리직(16)	2.87	.61	B
	파트타임·기타(35)	3.08	.44	B
	F값	3.16**		

*p<.05, **p<.01

(2)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사회적 지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 변인은 부모의 성별(p<.05), 종교(p<.01)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성별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 가운데 정서적 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성별의 특성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 있어서 종교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두 집단 간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

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종교가 있는 집단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종교생활을 통하여 폭넓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회적 지원과 관계에 노출 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지원의 폭 또한 넓게 지각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배경변인(N)		사회적 지지		
		M	SD	D
성별	남성(101)	3.38	.89	
	여성(319)	3.57	.73	
t값		-.20*		
종교	유(214)	3.62	.73	
	무(206)	3.42	.80	
t값		2.76**		

* p<.05, **p<.01

(3) 배경변인에 따른 자녀유능감의 차이

자녀유능감의 경우 전체적으로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결혼기간, 자녀의 출생순위, 사교육비, 학원의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먼저 자녀유능감의 하위 영역인 운동능력 영역은 부모의 직업($p<.01$), 소득($p<.01$), 자녀가 다니는 학원수($p<.01$)에서 집단 간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운동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직업을 전업주부, 상업·서비스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파트타임·기타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일곱 집단 간의 차이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전문직 집단이 다른 직업 집단에 비하여 자녀의 운동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운동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을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네 집단 간의 차이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200~300만원 미만 집단 보다 400만원 미만~400만원 이상 집단이 지각하는 자녀의 운동능력 영역 수준이 높았다. 즉 소득이 높은 집단의 부모가 자녀의 운동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능력 영역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p<.05$), 소득($p<.05$), 결혼기간($p<.05$), 자녀의 출생순위($p<.01$), 사교육비($p<.05$)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첫째, 사회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교육수준을 고졸, 대졸, 대학원졸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대학원 졸업집단이 고졸 집단과 대졸 집단 보다 사회능력 유능감이 높았다. 즉 대학원 졸업 이상의 부모집단에서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둘째, 사회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을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네 집단 간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부모의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과 월 소득

이 300만원 미만의 집단 중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높게 인식했다.

셋째, 사회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결혼기간을 10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결혼기간이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에 유의한 변수이기는 하나 결혼기간 자체가 집단별 차이를 나타내지 못함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자녀의 출생순위를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간의 차이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지각했으며, 그 뒤로 둘째 집단, 첫째 집단 순이었다.

다섯째, 사회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자녀의 사교육비는 전혀 쓰지 않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여섯 집단간의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한달에 2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집단이 사교육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 부모 집단보다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즉 한달에 2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가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인지능력 영역의 경우 부모의 연령($p < .05$), 교육수준($p < .001$), 직업($p < .001$), 소득($p < .05$), 자녀의 출생순위($p < .05$), 자녀의 사교육비($p < .01$), 자녀가 다니는 학원 수($p < .001$)등 전반적인 변인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첫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연령은 30세 이하, 30대, 40대, 50대의 네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집단간의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부모의 연령이 30대 이상인 집단이 30세 이하 집단보다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둘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수준을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집단간의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대졸 이상의 집단이 고졸 집단보다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셋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직업은 전업주부, 상업·서비스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파트타임·기타직으로 구분한 결과 집단간의 차이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파트타임·기타집단과 관리직 집단, 그리고 전문직 집단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직 집단이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넷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을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네 집단간의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사교육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 집단과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집단이 다른 부모집단보다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다섯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생순위를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간의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사교육비는 전혀 쓰지 않음, 50만

원 미만, 1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여섯 집단간의 차이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사교육비를 전혀 쓰지 않는 집단에 비해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집단이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일곱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자녀가 다니는 학원 수는 0곳, 1곳, 2곳, 3곳, 4곳 이상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집단간의 차이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자녀에게 4곳 이상의 학원을 보내는 부모집단이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가장 높게 지각했으며, 한 곳도 보내지 않는 부모집단이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가장 낮게 지각했다.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자녀유능감의 차이

배경변인(N)		자녀유능감								
		운동능력			사회능력			인지능력		
		M	SD	D	M	SD	D	M	SD	D
연령	30세이하(7)	3.09	1.09		3.34	.74		2.82	1.32	A
	30~39세(241)	3.08	.59		3.57	.64		3.54	.69	B
	40~49세(164)	3.17	.67		3.62	.63		3.63	.60	B
	50세이상(8)	3.04	.60		3.62	.69		3.55	.80	B
	F값	.72			.56			3.32*		
교육 수준	고졸(208)	3.08	.62		3.54	.69	A	3.38	.68	A
	대졸(190)	3.13	.63		3.61	.58	A	3.72	.64	B
	대원졸이상(22)	3.21	.72		3.92	.46	B	3.94	.58	B
	F값	.60			3.75*			17.24***		
직업	전업주부(174)	3.02	.64	AB	3.56	.65	A	3.52	.63	B
	상업·서비스(93)	3.23	.63	ABC	3.54	.70	A	3.56	.64	B
	사무직(75)	3.08	.51	AB	3.62	.51	A	3.69	.59	B
	기술직(12)	3.37	.62	BC	3.77	.73	AB	3.81	.61	BC
	전문직(15)	3.53	.72	C	4.06	.53	B	4.12	.55	C
	관리직(16)	3.28	.66	ABC	3.61	.79	A	3.66	1.05	B
	파트타임·기타(35)	2.90	.65	A	3.52	.51	A	3.14	.86	A
F값	3.28**			1.79			4.92***			
소득	200만원미만(184)	3.03	.64	A	3.54	.68	A	3.47	.75	A
	300만원미만(120)	3.04	.60	A	3.51	.59	A	3.54	.68	AB
	400만원미만(66)	3.31	.60	B	3.70	.58	AB	3.70	.54	B
	400만원이상(50)	3.32	.60	B	3.79	.63	B	3.74	.54	B
F값	5.65**			3.17*			3.04*			

*p<.05, **p<.01, ***p<.001

<표 6> 계속

배경변인(N)		자녀유능감								
		운동능력			사회능력			인지능력		
		M	SD	D	M	SD	D	M	SD	D
결혼 기간	10년미만(211)	3.06	.63		3.50	.69		3.50	.72	
	20년미만(197)	3.18	.64		3.68	.58		3.63	.64	
	20년이상(12)	3.00	.53		3.64	.32		3.51	.47	
	F값	1.95			4.19*			1.82		
자녀 출생 순위	첫째(286)	3.08	.63		3.52	.65	A	3.50	.69	
	둘째(113)	3.17	.63		3.72	.59	AB	3.70	.63	
	셋째이상(21)	3.23	.58		3.82	.58	B	3.67	.71	
	F값	1.21			5.57**			3.83*		
사고 육비	없음(11)	2.71	.64		3.28	.50	A	2.92	.92	A
	50만원미만(293)	3.09	.60		3.55	.64	AB	3.51	.67	AB
	50~99만원(93)	3.20	.67		3.71	.60	AB	3.76	.60	B
	100~149만원(15)	3.17	.74		3.77	.76	AB	3.70	.79	B
	150~199만원(5)	3.36	.93		3.48	.77	AB	3.76	.65	B
	200이상(3)	3.33	.60		4.03	.40	B	3.80	.72	B
F값	1.62			2.00*			4.17**			
학원수	0곳 (19)	2.71	.60	A	3.33	.49	A	3.05	.92	A
	1곳(109)	3.07	.60	B	3.53	.69	AB	3.42	.74	B
	2곳(143)	3.09	.61	B	3.62	.58	B	3.65	.59	BC
	3곳(104)	3.14	.63	BC	3.57	.67	AB	3.58	.65	BC
	4곳이상(45)	3.38	.68	C	3.79	.60	B	3.80	.63	C
	F값	4.21**			2.14			5.94***		

* p<.05, **p<.01, ***p<.001

(4)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관계의 질 차이

가족관계의 질은 부모의 교육수준($p<.01$), 직업($p<.05$), 자녀수($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가족관계 질의 차이에 있어서 교육수준을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간의 차이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관계 질의 차이에 있어서 직업은 전업주부, 상업·서비스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파트타임·기타직으로 구분한 결과 일곱 집단간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전문직 집단과 전업주부, 상업·서비스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파트타임기타 집단을 하나로 묶는 그 외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의 질은 전문직 집단이 높게 지각했다.

셋째, 가족관계 질의 차이에 있어서 자녀의 수를 1명, 2명, 3명, 4명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네 집단간의 차이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7>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관계의 질 차이

배경변인(N)		가족관계의 질		
		M	SD	D
교육 수준	고졸(208)	3.32	.43	
	대졸(190)	3.47	.39	
	대원졸이상(22)	3.46	.41	
	F값	6.81**		
직업	전업주부(174)	3.38	.43	A
	상업·서비스(93)	3.35	.47	A
	사무직(75)	3.47	.35	A
	기술직(12)	3.50	.37	A
	전문직(15)	3.73	.33	B
	관리직(16)	3.40	.45	A
	파트타임·기타(35)	3.31	.36	A
	F값	2.61*		
자녀수	1명(84)	3.25	.42	
	2명(285)	3.46	.42	
	3명(47)	3.31	.34	
	4명이상(4)	3.32	.42	
	F값	6.34***		

* p<.05, **p<.01, ***p<.001

(5)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

부모효능감에서는 부모의 성별(p<.05), 직업(p<.001), 결혼기간(p<.001), 자녀의 출생순위(p<.01)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첫째, 부모효능감의 차이에 있어서 성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한 결과

두 집단 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둘째, 부모효능감의 차이에 있어서 직업을 전업주부, 상업·서비스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파트타임·기타직으로 구분한 결과 일곱 집단간의 차이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전업주부 집단의 부모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전문직 집단이 가장 낮았다.

셋째, 부모효능감의 차이에 있어서 결혼기간이 10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간의 차이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넷째, 부모효능감의 차이에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생순위를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의 차이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자녀가 둘째인 집단과 셋째이상인 집단보다 출생순위가 첫째인 집단이 부모효능감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성별, 직업, 결혼기간, 자녀의 출생순위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전업주부 집단이, 결혼기간이 짧은 집단이,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 자녀인 집단이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부모효능감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이 부모에게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8 >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

배경변인(N)		부모효능감		
		M	SD	D
성별	남성(101)	2.93	.49	
	여성(319)	3.05	.54	
t 값		-2.07*		
직업	전업주부(174)	3.14	.54	C
	상업·서비스(93)	2.96	.58	BC
	사무직(75)	2.96	.45	BC
	기술직(12)	2.74	.45	AB
	전문직(15)	2.50	.52	A
	관리직(16)	3.05	.38	BC
	파트타임·기타(35)	3.05	.40	BC
	F값		4.85***	
결혼 기간	10년미만(211)	3.12	.53	
	20년미만(197)	2.92	.51	
	20년이상(12)	3.00	.51	
F값		8.11***		
자녀 출생 순위	첫째(286)	3.09	.51	B
	둘째(113)	2.90	.57	AB
	셋째이상(21)	2.79	.46	A
F값		7.26**		

*p<.05, **p<.01, ***p<.001

3. 배경변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문제 3>인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설명력의 증가를 보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델 I에서는 배경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배경변인을 통제하고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을 추가한 모델 II, 배경변인과 그 외의 변수를 모두 추가한 모델 III로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델 I 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소득, 결혼기간, 자녀수, 자녀의 출생순위, 자녀의 사교육비와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원 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이 7.0%로 나타났으며, 성별($\beta=.113, p<.05$), 결혼기간($\beta=-.184, p<.01$), 자녀의 출생순위($\beta=-.158, p<.01$)가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을 통제한 나머지 변수를 모두 추가한 모델 II의 경우 부모의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beta=.360, p<.001$)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자율지향성 성격을 가진 부모의 경우 부모효능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는 부모효능감의 총 48.6%를 설명하였으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만을 보았을 때보다 부모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41.6%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자녀유능감의 경우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beta = -.169, p < .01$)이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자녀의 인지능력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모효능감을 낮게 지각했다. 가족관계 질의 경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beta = .118, p < .05$)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배경변인과 그 외 변수를 함께 살펴 본 모델 III는 부모의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beta = .372, p < .001$),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beta = -.192, p < .001$), 가족관계의 질($\beta = .130, p < .01$)이 부모효능감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는 부모효능감의 영향변인을 총 30.7%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 변수는 부모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였으며, 출생순위 변수와 결혼기간 변수는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나 다른 상황적 변수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의함에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자율지향성이 부모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관계의 질,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 결혼기간, 자녀의 출생순위, 부모의 성별 순으로 부모효능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부모효능감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즉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배경변인 보다는 부모의 성격특성과 가족관계의 질 등 부모-자녀와 부부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이해가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표 9> 배경변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변 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배경변인						
성별 ¹⁾	.141	.113*			.119	.095*
연령	.029	.031			-.022	-.023
교육수준	-.011	-.012			.057	.064
종교 ²⁾	.048	.045			.027	.025
직업	-.011	-.005			-.017	-.059
소득	.008	.015			.001	.002
결혼기간	-.178	-.184**			-.194	-.201***
자녀수	.056	.061			.067	.073
출생순위	-.147	-.158**			-.092	-.099*
사교육비	.027	.036			.008	.049
학원수	.007	.014			.037	.015
성격특성						
관계지향성			.051	.059	.050	.057
자율지향성			.308	.360***	.318	.372***
사회적 지지						
			.022	.032	.017	.025
자녀유능감						
운동능력 영역			-.006	-.007	-.011	-.013
사회능력 영역			-.010	-.012	.027	.033
인지능력 영역			-.132	-.169**	-.150	-.192***
가족관계의 질						
			.150	.118*	.165	.130**
Intercept	3.061		2.896		2.931	
F 값	2.789**		18.202***		9.870***	
R ²	.070		.486		.307	
R ² 증가량			.416		-.179	

* p<.05, **p<.01, ***p<.001

주 1) 성별: 여=1, 남=0 주 2) 종교: 유=1, 무=0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42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조사에 의해서 부모효능감의 내용을 측정하였다.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 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전반적인 수준은 총점 및 모든 하위영역에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성격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박현숙(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부모의 성격 특성은 자녀를 키우면서 갖게 되는 어떤 새로운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부모의 성격이 부모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녀유능감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 평가이며, 조사대상자인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자녀 유능감을 지각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의 자녀유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영아(이영환

· 오미연, 2006)나 유아(박은주, 2002)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은 물리적 양육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영아기나 유아기 자녀에 비해 학동기 자녀들의 부모로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의 관계는 부모의 연령과 직업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을 높게 지각했으며, 부모의 직업이 사무, 기술직, 서비스직, 전업주부, 파트타임·기타직의 부모가 자율지향성을 높게 지각했다. 이는 연령이 낮은 부모일수록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표현하는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이해 해 볼 수 있다. 즉 자율지향성 부모의 특징은 부모 자신이 설정한 목표의 성취를 중시하는 유형이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부모의 연령이 낮을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유가호와 박선주(2004)의 연구에서 모의 성격 특성이 자녀의 성격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이 부모의 성격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상자들의 공통점은 부모의 성격특성인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에 관계없이 자녀의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업성적이나 지적 성취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강해질 것을 예상 할 수 있으며, 그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율지향성 부모가 자신의 신념대로 자녀교육을 시키기에는 우리의 교육환경 조건이 매우 제한되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녀의 교육열을 높이게 될 경우 자율지향성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오히려 감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 매우 클 것으

로 사료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상과 같이 부모의 성격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과의 관계는 성별과 종교만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다소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개인의 가족이나 친지, 주변이웃, 친구들과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통하여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쉬우므로, 사회적 지지수준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Crnic(1990)은 사회적 지원과 배우자, 친한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 이웃에서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이 어머니의 민감하고 긍정적인 반응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강조 하였다. 이은혜(1997)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서적 지원이 많다고 느낄수록 부모는 자녀 돌봄이나 인지적 자극의 제공이 더 수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부여받고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곧 부모효능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자녀유능감과 배경변인과의 관계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결혼기간, 자녀의 출생순위, 사교육비,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수 등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유능감의 하위 영역인 운동능력 영역은 아동의 실외 놀이나 운동에 관한 능력을 부모가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운동능력 영역을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이는 소득이 많은 아버지 일수록 소득이 적은 아버지보다 경제적, 심리적 여유를 가지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허영림과 윤혜진(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에 따라 운동능력 유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선

행연구들(공인숙, 1989; 이주리, 1994; 이진화 · 전경숙, 1995)과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부모는 자녀에게 성별의 구별 없이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게 한 후 자녀의 선호성이 나타났을 때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운동능력 영역에 대한 자녀의 능력을 지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지각했다. 이는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려 한다는 연구와 일치(최진선, 2000)하는 결과이다. 소득과 관련해서 부모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한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정미(200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자녀에게 제공되는 경험이나 자극의 질이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일 때 부모는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둘째 이상의 자녀들이 첫째 자녀 보다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나타낸다는 김재한(1984)과 김미화(1997)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이전 자녀의 양육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셋째 자녀에게 좀 더 능동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는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더 높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부모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교육열과 지식중심의 입시교육, 조기 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은 자녀를 훌륭한 대학에 보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김영화, 1992), 실제로 자녀양육에서 자녀의 성적문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은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의 학업수행에 관련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지능력 영역의 경우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자녀의 출생순위, 사교육비, 학원 수 등 전반적인 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다정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민현숙(199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대졸 이상의 부모가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격려하고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김정옥(2003), 민현숙(1997), 윤서영(199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월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와 자녀를 4곳 이상의 학원에 보내는 부모가 자녀의 인지능력을 높게 지각했는데 부모가 사교육비의 지출을 통하여 자녀의 성취지도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유능감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부모로 하여금 자신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여 왔음을 실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변인들은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로 각각의 영역들이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자녀유능감의 발달영역별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섯째,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과의 관계는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자녀 수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했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고소득의 직업일 경우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갈등과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가족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라고 본다. 부모에게는 학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이나 자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하여 가족생활주

기에 따른 가족관계의 질과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가 탐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섯째,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과의 관계는 부모의 성별, 직업, 결혼기간, 자녀의 출생순위 등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모효능감을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효능감을 다소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주(2002)와 오미숙(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효능감이 아버지의 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와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사례수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효능감은 전업주부가 높게 지각했다. 이는 부모의 직업지위가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갈수록 부모효능감이 증대된다는 선행연구(김선애 · 한유진, 2009)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취업모가 전업주부에 비하여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안지영(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직업과 부모효능감과는 관련이 없다는 오경숙 · 한유미(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에 따른 차이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2-3세의 유아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안지영의 연구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대상이 다르므로 인해 부모효능감도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변인과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좀 더 축적 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자녀를 위한 교육정보 수집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이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젊은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장은경 외, 1998)과도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효능감에서 결혼기간은 결혼만족도와도 연관이 있는 변수로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집단이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미나(1994)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에 대한 수행정도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는 부부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며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므로 부모효능감 또한 높게 지각한다고 생각된다.

부모효능감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첫째 일수록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했다. 이는 이숙현(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에게 처음으로 태어나는 첫째 자녀는 부모는 물론 주위의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며, 자녀 양육의 경험이 없는 부모에게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부담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첫째는 부모 자신이 온갖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거의 모든 첫째 자녀는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독자로서의 위치와 대우를 만끽하게 되는데(Adler, 1956), 부모는 대체로 큰 자녀에게 큰 기대와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게 되므로, 일찍부터 자녀의 지능발달을 위한 교육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김병숙 · 김경아, 2006. 재인용). 이와 같이 첫 자녀의 출생은 부모됨의 역할에 긍정적이며, 자녀의 출산은 부모효능감을 지각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부모로서의 능력을 믿어주는 유의미한 타인의 존재와 그들이 부모의 능력을 믿어줄 때 부모효능감은 더 쉽고 높게, 오래 지속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학교 적응시기에 주변의 과열된 조기 교육이나 자녀의 원만한 학교적응에 대해 영향과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모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이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부모효능감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부모의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이었으며, 가족관계의 질,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 부모의 결혼기간, 자녀의 출생순위, 부모의 성별 순으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격특성이 부모효능감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자율지향성의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일에 관여하기 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자율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역할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므로 성격 특성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본다.

김정택과 심혜숙(1990)은 사람들은 누구나 태도나 기능들 중에서 자신이 더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의 선호성은 선천적이며 모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것임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성격특성은 부모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는 중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은 부모효능감에 부적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인지능력 즉 학습능력이 뛰어날 경우 부모가 자녀양육에 덜 주도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Miller(1986)는 그의 연구에서 아동의 능력은 부모의 아동에 대한 신념 및 양육방법에 변화를 준다고 시사했다. 즉 높은 지적 능력의 아동은 낮은 지적 능력의 아동보다 부모에게 더 분명한 판단적 단서를 제공하기 쉬우므로, 부모와 아동의 행동 간에 변화가 있다면 이는 부모의 양육 실제보다 아동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 서미정(1999)은 아동의 유능감은 어머니가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 보다 어머니가 아동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아동의 전반적 유능감 뿐 아니라 영역별 유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부모효능감이 자

너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다른 변인을 보완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가족관계의 질은 가족관계 안에서의 구성원간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은 갈등이 적고 안정된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부모효능감이 낮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은 갈등이 많고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맺게 된다. 가족관계의 질과 부모효능감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부모효능감과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유의한 결과들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다. 다만, 대부분의 부모가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 할 때 부모로서의 자신감인 부모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한다.

부모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과 심리적 안녕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전반적인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주목 받게 될 변인이다. 부모의 성격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효능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2.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에 관한 결론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부모효능감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경향이었으며, 부모효

능감을 설명하는 그 외의 변인들인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성격특성인 관계지향성, 자율지향성 순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부모의 성격 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중 부모 효능감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부모의 성격 특성이었고, 자녀유능감은 하위영역인 인지능력 영역에서 낮으나 유의하게 부모효능감을 예측해 주는 변인이었다.

셋째, 부모의 성격 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 본 결과 부모의 성격특성,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은 부모효능감에 직접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특히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은 부모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자녀유능감은 하위영역인 인지능력 영역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관계의 질 역시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또한 부모의 성격특성과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매우 높았다.

넷째,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이 부모효능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성격 특성인 자율지향성의 경우 부모효능감 뿐 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에 직접적 · 간접적 영향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종합적인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 대상을 서울과 신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과 2학년)자녀가 있는 부모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넓은

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부모 개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층의 확대는 기존연구에서의 불일치한 연구결과들을 명확히 규정해 낼 수 있는 이점 또한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모효능감 탐구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등을 추가한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더욱 실제적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효능감에 부모 개인의 성격특성과 가족관계의 질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부모효능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서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모-자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부모의 성격특성과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과정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가 부모 치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게 활용됨으로써, 부모효능감이 낮거나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연구자의 바람이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해 한정되어 있던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을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에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해 본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부모효능감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

모의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초등학교 입학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효능감 연구는 자녀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초기 특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주(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 지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문정(2003). 부모의 사회적 지지 및 청소년의 내외통제성향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선주(2004). 부모역할 전환 후 부모로서의 긴장감이 취업모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Vol. 13(5).
- 공인숙·최연실(1994). 양성적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역량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5(1).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가치 지각. 아동학회지, 10(1).
- 구순주·최보가(1998).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23-34.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혜(1994). 자녀의 지적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김명혜(2006). 한국과 캐나다 거주 어머니들의 부모신념, 양육태도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화(1997).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건

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병숙·김경아(2006). 성 및 출생순위가 부모의 자녀 진로기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 제19권(1).

김선애·한유진(2009).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 18(1), 56-57.

김선자·조옥귀(200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기 존중감 및 행동문제와의관계,경남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3(1), 361-385.

김연옥·김연희(2002).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성격특성이 유아와 부모간의 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제5호.

김영지(1994).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철·이영선·이호준(1997).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종합보고서.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영화(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4), 173-197.

김영화(2006). 청소년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가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희·선희정·채영문(2007).원가족의정서분위기,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김이례(2003).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학업자아개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재은(1974). 한국가족심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재한(1984). 출생순위에 따른 성격차에 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17, 491-512.

- 김정옥(2003). 아버지의 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 생활과학연구논총, 7(1), 141-161.
- 김정희·문혁준(200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연구. 대한가정학 회지, 42(10), 23-38.
- 김정택·심혜숙(1990). 나의 모습 나의 얼굴. 한국심리검사 연구소.
- 김종범(1995). 부모의 성취압력과 시험불안 및 학업성적의 관계 분석. 충남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은(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유능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2005). 남성의 아버지 역할수행과 유능감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저학 년 자녀를 둔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3(1), 113-123.
- 김태현·이영자(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10(3), 173-193.
- 김태현·임선영(2004). 가족이념, 생활교류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 중년세대와 성인세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9(1); 85-109.
- 김현미·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 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혜연(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93-102.
- 류웅상(1999). 초등학교 입학초기 아동의 교육활동 적응실태 분석. 홍익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 정학회지, 36(11), 91-101.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문혁준(2000).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정도와 자녀훈육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8(4), pp.115-128.
- 민미희·이순형·이옥경(2005).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내면화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3(11): 109-125.
- 민순선(2000).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투자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116.
- 민현숙(1997). 아동기 아버지의 생활만족 수준과 역할수행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외(2003). 부모교육. 교육과학사.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 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주(2002). 부모효능감과 아동의 역량지각 및 외로움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2003).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숙(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성과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은령(2000). 21세기 청소년 포럼; 디지털 혁명과 가족관계의 변화. 한국청소년학회, 155-174.
- 배기조(1992). 아동의 역량에 대한 과대, 과소평가와 사회정서 지각.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미정(1999). 개인적인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

- 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혜련(1996).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모자간 애착, 유아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미애·송연숙·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 12(5), 165-183.
-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 지원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호정(2005). 취학전 유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학교 적응 기대화 부모효능감 및 자녀유능감 평가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숙희(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기도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희정(2005). 부모효능감과 가족 응집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양외점(1993). 유아의 애착유형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정윤(1999). 사회지향성, 자율지향성과 부정적 생활사건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 성격-사건 일치가설과 증상 특정성가설.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연구. 한국가족관리협의회.
- 오경숙·한유미(2006).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태,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대한 가정학회지, 44(11), 107-116.
- 오미숙(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 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미(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옥(1999). 가족의 건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4(2).
- 옥선화 외(2006). 결혼과 가족. 하우.
-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 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우희정·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 71-90.
- 유가효·박선주(2004). 부모의 성격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1호.
- 유미숙·하은혜·김혜진(2004). 완벽주의 성향의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1(3) : 425-444.
- 유연옥(1999).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제공자와 지지우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부산지회, 12(1) : 127-144.

- 유영미·문승태(2005).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한국진로교육학회, 18(2), 1-19.
- 유영주·김경신·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유은경(1999). 아동의 지각된 유능감과 학습태도간의 관계.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지영·김명자(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51-165.
- 윤은수(1982). 부모의 성격이 학령전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85). 성인·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윤서영(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진란(1994). 부모의 성격특성과 아동이 공격성간의 상관.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홍식(2004).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회, 14, 263-293.
- 이경주·신효식(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 15(4) : 15-26.
- 이내수(1987).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대균(1990). 국민학교 1학년 아동에 대한 소집단 활동중심 교수방법의 적용과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대균(1997). 초등학교 조기 취학 정책에 관한 연구. 배재논총, 2, 215-242.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고려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희·한은주(1998). 기혼 남성 아버지 역할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이수진·홍세희·박중규(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연관성. 한국교육심리학회, 19(4), 1179-1197.

이숙현(1998). 한국 근로자계층 부부의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 22집, pp 161-181.

이진숙(198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형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슬기·전귀연·김수경(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일 역할 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5(1), 35-49.

이영석·이경영(1989). 유아사회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이영환·오미연(2006).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9(3), 47-62.

이은혜(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3호, pp.31-45.

이원희(1997).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신념과 유아기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주리(1994). 아동의 역량지각과 관련변인들간의 인과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4).

이진화·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 이혜영(1985).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연구; 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희수·박성연(2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장가영(1990).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은경(1996). 3세아 교육 수행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은경·박은혜·김희진(1998). 만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대한 가정학회지, 36(4), 137-146.
- 전경숙(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능력 성취 및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숙자(1984).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성과의 상관관계. 숭의여자대학. 승의논총, 15-23.
- 제경숙(1989). 고등학생을 위한 부모역할교육의 교과과정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경숙(2000).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복희 외(2000). 인간발달. 교문사.
- 차은영(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아버지와 자녀간의 활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길례(2002). 가족의 여가활동이 정서적 역동성과 가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성열(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한국 아동교육학회, 10(1), 119-132.
- 최윤희(199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울산지역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대구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미(2002).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4), 125-138.
- 최진선(2000). 유치원 교육에 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식과 기대 비교.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태석(1993). 국민학교 입문기 아동의 교육 활동 적용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교육연구원.
- 최한순(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형성(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111-122.
- 한국소비자보호원(198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 방안.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선애·이유진(2009).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55-64.
- 한유진·최유나(2004).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생활만족도가 대

- 인관계 상황 귀인 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11(3), 363-384.
- 한유진·김선애(2007).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의 양육수행 유능감과 양육수행. 한국가정학회지, 25(2), 37-46.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영림·윤혜진(1999). 아버지의 역할지각과 심리적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19, 333-347.
- 현은강·공인숙·김영주·이완정(1997). 유아학습지의 현황 및 인식도. 아동학회지, 18(2), 67-93.
- 현은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영주(1996).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사회적 지지가 자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은(2005). 성인 전기 남성의 부부대처이 직무 애착 및 헌신, 직무의 질과 아내를 위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1) : 171-191.
- 홍미혜 (2000). 생활사건스트레스와 삶의 의미수준이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숙자(1999). 노년학 개론. 하우출판사.
- Antonucci, T.(1990).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T. Antonucci(ed.),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California:

Academic Press.

Allport, G. 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Alreck., & M. A. Belch.(1979). *Social Class Determinant of Leisure Activit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6.

Adler, A.(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New York: Harper & Row.

Abide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 Psychology press.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95.

Baruch & Barnett.(1986). *Consequence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Parents' role strai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5), 983-992.

Beck, A. T.(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 In P. J. Clayton & J. E. Barrett(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New York : Raven Press.

Beck, A. T.(1987).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 2-27.

Berk, L. E.(2002). *Infants and Children: Parental Through Middle Children*. MA: Allyn & Bacon.

- Belle. D. & Longfellow, C.(1982). Social ties and social support. In D. Belle(ed). *Lives in stress: Woman and depress*(Ch.10). Beverly Hills, CA: Sage.
- Belle. D. & Longfellow, C.(1985). *Confiding as a coping strategy*. Unpublished manuscript. Boston University.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gr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pp. 83-96.
- Bigner, J. J.(1977). "Attitude forward fathering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2), 89-106.
- Bogenschneider, K., Small, A., & Tsay, J.(199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2), 345-362.
- Boss, P. G.(1988). *Family Stress Management : Family Studies Text Serious 8*, Beverly Hells : sage Publications.
- Caplan. G. & Killilea, M.(1976). *Support Systems and Mutual Help Resistance*, New York : Grune and Stratton.
- Cassel.(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Host Reside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 102, pp. 107-123.
- Cause, A. M.(1987). School and peer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A test of domain specific self perceived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87-291.
- Cobb.(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n, D. Paterson, C., & Christopoulos, C.(1991). The family and

-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 Review*, 18, 47-85.
- Craig, G. J.(1983). *The middle years : Continuity and change in human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eaglewood Cliffs.
- Crnic, K. A., & Booth, C. 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els of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1, 1042-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ockenberg, S.(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infant-mother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s*, 52, 857-865.
- Davis, G. R.(1985). *Developmental patterns of stress and coping: middle age and older adult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hgton.
- Dorsey, S., Klie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effica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Dunst, C. J., Trivette, M. & Cross, A. H.(1986). Mediating influences of

- social support: personal, family and child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90, 403-417.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 North and Co.
- Eysenck.(1973). *Eysenck on Extraversion*. New York.
- Falbo & Polit.(1987). A only child personality Development;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09-325.
- Feldman, S Nash, S., & Aschenbrenner.(1983). Antecedents of fathering. *Child Development*, 54, 1628-1636.
- Ford, M. E.(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mental Psychology*, 18, 323-340.
- Garbarino, J.(1987). The Price of Privacy in the Social Dynamics of Child Abuse. *Child Welfare*, 56, pp. 565-575.
- Garbarino, J., & kostelny. K.(1992). Child maltreatment as a community problem. *Child Abuse & Neglect*, 16, 455-464.
- Giband-Wallston, J., & Wandersman, J.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ould, R. L.(1978). *Transformation :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Y. :simon and Schuster. Inc.
- Greenhaus, J., & Reutell, N.(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219-319.
- Grossman, F. K.(1987). Seperate and together : Men's autonomy and affiliation in the transitions to parenthood. In P .W. Berman & F.A. Pedersen(Eds)*Men's transitions to parenthood*(pp.89-112).

- Hillsdale, N.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mmer, T. J., & Turner, P.H.(1996).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Allyn & Bacon.
- Hanes, M. L., & Dunn. S. K.(1978). Maternal attitudes and the development of mothers and children. In J. H. Stevens Jr.&M. Matthews(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hip.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Harter, S.(1982).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77-87.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cale-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 Pike.(1984). The Pictorial Scales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 Harris, A. W., Pettit. G. S., Dodge, F. A.,& Bates, J. E.(1994). Dynamic synchrony in mother-child interaction; relation with children's subsequent kindergarten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3, 417-424.
- Hetherington, E. M., & Martin, B.(1986). Family factors and psychopathology in children. In H. Quay & J. Werry(Ed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3rd ed., pp. 332-390). New York: Wiley.
- Hock, E.(1978).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nd their infants:

- Perceptions of their careers, their infants needs, and satisfaction with mo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4, 37-43.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Eddison-Wesley.
- Hudson, W. W., Acklin, J. d., & Bartosh, J. C.(1980). Assessing discord in family relationships,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1-29.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Jung, C. G.(1926). Psychological types or the Psychology of Individuation. In H., Brace, *Psychological types*(1971).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Ladd, G W.(1999).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early and middle childhood.
- Ladd, G . W., & Price, J. M.(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Lamb, M. E.(1987). *The father role: Cross cultural Persecutive*, Hillsdale, NJ: Erlbaum.
- Lockwood, A. S.(198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personality and infant tempera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 Luster, T. & Kain, E. L.(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29, 310-311.
- Luster, T. & Okagaki, L.(198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coby, E. E.(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Harcount Brace Jdvanovich, Inc.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Parent-child interaction. In P.H. Mussen(Series Ed.) and E. M. Hetherington(Vol. Ed) *Handbook of chil psychology; Vol, 1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1-101, new york-wiley.
- Marcus, R .E., & Leiserson, M.(1978). Encouraging helping behavior. *Young Children*, 33, 23-34.
- McGillicudy-De Lisi, A.V., & Sigel, I.E.(1995). Parental beliefs. In M.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pp. 333-358).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lson, G. F., Ladd, G. W., & Hsu, H.(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Miller, N., & Maruyama, G.(1976). Ordinal position and peer popularity. *Journal of Pe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123-131.
- Miller, S. A.(1986). Parent's beliefs about their children's cognitive abili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76-284.

- Miller, S. 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58.
- Minnett, A. M., Vandell, D, L., & Santrock, J. W.(1983). The effects of sibling status on sibling interaction : Influence of birth order, age spacing, sex of child, and sex of sibling. *Child Development*, 54, 1064–1072.
- Modell, S., & Tyler, F.B.(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Natasa. J. Cabrera, Jacqueline. D. Shannon., & Catherine Tamis-Lemonda .(2007). Father's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Toddlers To Pre-K. *Applied Development Science*, Vol 11, 4, 208–213.
- Parke, R. D.(1996). *Fatherhood: Myths and Realities*. In R. d Parke(Eds). *Fatherhood*,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 R. D., & O' Leary,S,(1975). Father–Mother–infant–interaction in the newborn period: Some findings, some observation, and some unresolved issues. In K. Reigel and J. meacham(Eds). *The developing individual in changing world: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Vol.2). The hauge : Mouton.
- Parsons, T.(1965). *Theories of Society Foundations of Modern Sociology*, NY, Free Press.
- Pettit, G.. S., Bates, J. e., & Dodgem, K.A.(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seven 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Pleck, J. H.(1993). Are family-supportive employer policies relevant to men? In J.C. Hood(Eds), *Men, Work and Family*(pp. 217-237), Newbury Park. Ca : Sage.
- Putallaz, M., Costanzo, P. R., & Smith, R.(1991). Maternal recollection of childhood peer relationship : Implications for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03-422.
- Robin, C. J., Ladd, J., Welkowitz, J., Blaney, P. H., Diaz., R., & Kutcher., G.(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 277-301.
- Roff, M., Sells, S. B. & Golden, M. M.(1972). *Social Adjustment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Childre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chaie, K. W., & Willis, S. L.(1991). *Adult development and aging*(3rd ed.). NY: Settle, R. B., P. L.
- Scheel, M. J., & Rieckmann, T.(1998). An Emprically de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15-27.
- Shumow, L & Lomax, R.(2002). Parental efficacy: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dolescent outcom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2), 127-150.
- Teti, D.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Woods, M.(1972). The Unsupervised child of the working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1, 14-25.

Zahn-Waxler, C., Cummings, E. M., McKnew, D. H. & Radke, M(1984).
Altruism,aggression and social Interactions in young children with a
manic-pressive parent. *child development*, 55, 112-122.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e on Parental Efficacy Perceived by Parents who had Children Enrolled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Park, Jun Hee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al efficacy of parents who had children enrolled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efficacy.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picked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children's competence, 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as the factors to affect parental efficacy. The focus of the study was placed on what kind of impacts those related variables would have on parental efficacy.

In an attempt to test them, I constructed a structural questionnaire consisting of the inventorie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children's competenc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al efficacy.

Total 42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analysis gathered from parents who are lived in Seoul or new towns in Gyeonggi Province and who had

children in lower grades. Using the SPSS WIN 14.0 program, the gathered data were analyzed in frequency, percentage, mean, t-test, one-way ANOVA, product-moment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fter examining the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 tested differences in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children's competenc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al efficacy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Finally, I tested the relative influences of the background variables,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children's competence, 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on parental efficac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mean was obtained to understand the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d relationship orientation described with high interes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information and autonomy orientation described with sensitivity to one's own goals and rules. On a five-point scale, the subjects scored more points in relationship orientation than autonomy orientation, respectively.

They scored most high points in social support, which refers to positive feelings parents have through social relations, and in orders as in children's competence, in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which refer to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y, in parental efficacy, which refers to confidence as parents.

Secondly, each variable's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Those who were aged 30 or older and office workers or stay-at-home mom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of autonomy orient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the

parents with the mothers being more aware of social support than the fathers.

The more educated the parents experienced the higher perceptions they had of children's competence. When the parents were professionals, earned high income, and sent their children to four extracurricular work or more, they positively perceived the motor and cognitive skills. And when the children in a lower grade were their third children or younger and enrolled in many extracurricular work , they positively perceived children's social skills.

I also measured conflicts and stressors within family to underst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and vocation and the number of children. The mothers in this study were more aware of parental efficacy than the fathers. Those who were marri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had their first children in a lower grade tended to have higher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Finally, it turned out the parents' autonomy orientation had the biggest influences on parental efficacy. Those who had a higher level of autonomy orienta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an emphasis on individual autonomy, behavior, freedom of expression, and one's own goals, tended to be more aware of parental efficac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shed light on the influences that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children's competence, 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of parents with children in lower grades had on parental efficacy and thus confirmed that parental

efficacy could be affected by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ren's competence.

<부록>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4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5	16	17	18	19
1 성별	1																		
2 연령	*** -.183	1																	
3 교육	** -.138	** .141	1																
4 종교	-.061	.007	-.062	1															
5 직업	-.064	.036	.009	-.027	1														
5 소득	*** -.212	** .166	*** .408	.008	** -.160	1													
7 결혼기	.032	*** .468	.014	.031	.035	.035	1												
8 자녀수	-.047	** .137	* -.115	.002	.001	-.011	*** .309	1											
9 출생순	-.075	** .126	-.002	-.008	.033	.074	*** .212	*** .258	1										
10 사교육	* -.122	.084	*** .196	.059	-.067	*** .282	.090	.003	.100	1									
11 학원수	-.046	.084	*** .236	.050	-.142	*** .250	.042	-.090	.008	*** .407	1								
12 관계	.030	.056	-.026	.080	.034	.030	-.056	.030	.000	.027	.023	1							
13 자율	.016	* .118	.010	.067	.029	.015	.035	.008	.054	.006	.044	.508	*** 1						
14 지지	* .100	-.049	.069	-.134	.007	.048	.038	.066	.027	.062	.016	.047	.150	** 1					
15 운동	-.024	.055	.054	.058	-.064	*** .180	.067	.042	.076	.122	.165	.021	.093	** .140	1				
16 사회	-.010	.051	* .115	-.030	-.017	** .128	** .130	.048	.159	.125	.110	-.054	-.102	*** .276	*** .504	1			
17 인지	-.010	* .096	*** .274	.056	-.151	** .144	** .076	.009	.122	.172	.193	-.008	.086	*** .278	*** .348	*** .513	1		
18 가족	-.039	-.068	** .163	-.065	-.043	* .098	.019	.072	.104	.030	.031	.108	.157	*** .372	*** .213	*** .363	*** .396	1	
19 부모	* .101	-.083	-.019	.038	-.033	-.011	*** -.175	-.037	-.182	.002	.018	.255	.421	* -.120	* -.125	*** -.176	*** -.249	*** -.242	1

*p<.05, **p<.01, ***p<.001

설문지

--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효능감'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옳고 그른 것이 없으며,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평소 느끼시는 대로 각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설문에 응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8. 10월

성신여자 대학교 가족학연구실

I. 다음은 귀하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나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나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내 계획을 방해할 때 기분이 상한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살핀다					
3. 나는 성격상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부담스럽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 하기 어렵다.					
5. 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 자신이 싫어진다.					
6. 나는 어떤 사람의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막상 관계를 끊기가 어렵다.					
7. 나는 나에게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쓴다.					
8. 나는 내 기분을 털어놓고 사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					
9.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나 자신을 판단한다					
10. 나는 존경심이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힘들다					

II. 다음은 귀하가 자녀를 키우면서 **주위사람들에게 받는 도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내 주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아이에 관한 문제를 기꺼이 들어주면서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2. 필요한 경우 내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사람이 있다					
3. 아이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큰돈이라도 마련해 줄 사람이 있다					
4. 아이를 키울 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5.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6. 내가 몸져누웠거나 너무 바쁠 때, 가사나 아이 양육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다					
7. 아이를 키우는 나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다					
8. 내가 아이문제로 혼란에 빠졌을 때,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					
9. 아이 때문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나에게 그 물건을 빌려 주는 사람이 있다					
10. 내가 아이 문제로 기분이 언짢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11. 아이 키우기가 중요하면서도 힘이 드는 일임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12. 아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Ⅲ. 다음은 귀하의 자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학교공부를 잘한다					
2.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낸다					
3. 운동을 대체로 잘한다					
4. 단체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다른 아이들에 비해 똑똑하다					
6. 다른 아이들에 비해 운동에 소질이 있다					
7. 공부할 때 정답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아낸다					
8.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9.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운동이라고 잘 할 수 있다					
10. 배운 것을 잘 기억한다					
11. 처음 만나는 아이와도 친하게 잘 지낸다					
12. 새로운 운동이나 게임을 금방 배우는 편이다					
13. 어려운 문제(수학, 자연)에 대한 답을 잘 맞추는 편이다					
14. 대부분의 일을(공부, 놀이등) 친구들과 의논한다					
15. 게임이나 운동은 직접 하는 것보다 구경하는 편이다					

16.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표현한다					
17. 친구관계에서 생긴 고민거리와 갈등을 부모에게 이야기 한다					
18. 운동할 때 대표로 뽑힐 때가 많다					
19. 친구들과 놀 때 앞장서서 친구들을 잘 이끌어 나간다					
20. 다른 아이들에 비해 친구가 많다					
21. 밖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부모님, 형제 등)에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IV .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고 계시는 '가족관계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우리 가족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서로를 아껴준다					
2. 우리가족은 서로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3. 우리가족은 함께 지내는 것을 즐긴다					
4. 우리가족은 서로 의지한다					
5.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다					
6. 우리가족은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					
7. 우리가족은 자주 다툰다					
8.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칭찬을 잘한다					
9.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큰 기쁨이다					
10. 우리가족은 사랑이 넘친다					
11.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다					

12. 우리가족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13. 우리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사이가 더 좋아 보인다					
14.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V. 다음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어보시고 부모님이 느끼신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의 행동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2. 나는 우리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3. 우리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4. 현재 우리 아이가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6.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7. 우리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8.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10. 나의 흥미와 관심은 부모역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11.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13.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14. 나는 부모로써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15.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알고 있다					

※ 다음은 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 표시해 주시거나, 간단히 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_____ ② 여성_____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세
3.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국졸이하_____ ② 중학교졸_____ ③ 고등학교졸업
 ④ 대학교졸업_____ ⑤ 대학원 졸업이상 _____
4. 귀하의 종교 유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유 _____ ② 무_____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종류	해당 되는 곳 V 표시
① 무직	
② 전업주부	
③ 자영업, 판매종사, 서비스직	
④ 사무직(예: 회사원, 교원, 은행원등)	
⑤ 기술직(예: 건축기술, 공학기술 등)	
⑥ 전문직(예: 의사, 변호사, 검사, 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⑦ 관리직(예: 공무원, 대기업 부장급이상, 국가기관 과장급이상)	
⑧ 기타	

6. 귀하의 한달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0 만원 미만 _____ ② 200만원 미만 _____ ③ 300 만원 미만 _____
 ④ 400만원 미만 _____ ⑤ 400 만원이상 _____

7. 귀하의 가족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부부 + 자녀 _____ ② 한부(모)+ 자녀 _____
 ③ 친정부(모)+ 부부+ 자녀 _____ ④ 시부(모)+ 부부+ 자녀 _____

8. 귀하의 결혼 지속년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년

9. 귀하의 자녀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명

10. 귀하의 초등학교 자녀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_____ 세 ② 여 _____ 세

11. 초등학교에 다니는 귀하의 자녀에게 들어가는 한달 동안의 평균 교육비는 얼마 이십니까?

평균 _____ 원

12. 귀하의 자녀가 방과 후에 다니는 학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평균 _____ 곳

※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